

트럼프발 관세폭탄...엇친데 덮친 광주·전남 철강업계

수출 단가 하락·글로벌 가격 경쟁 부진의 늪서 25% 관세 직격탄 전남 3대 주력산업 대미 수출 하락 심화...자동차·가전제품도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세 폭탄'이 현실화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광양으로 대표되는 전남지역 철강산업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직격탄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전남 철강산업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 단가 하락과 글로벌 가격 경쟁 심화로 부진의 늪에 빠져있었는데 미국의 관세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시련이 예상된다.

또 국산 철강판을 수입해 미국과 멕시코 등에서 제품을 생산 중인 대기업은 물론 부품업체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로 당분간 미국 발 관세 폭탄에서는 빗겨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 부과 정책을 펴면서 추후 관세 폭탄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당시, 미국과 별도의 협의를 거쳐 대미 수출량 263만t에 대해서는 무(無)관세 적용을 받았던 쿼터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전남 철강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석유화학에 이어 전남 산업 중 두번째로 큰 규모의 철강산업은 종사자만 2만명에 달하는 주력 산업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의 3대 주력산업 중 하나인 철강산업의 수출액은 지난 2022년 기준 97억불(14조853억원)을 기록했다. 전남 대표 산업인 석유화학(136억불)의 71% 수준으로 기업수만 331개, 종업원만 1만9479명에 달한다. 생산액은 23조원이었다.

전남 철강산업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과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가 철강판 수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하락세를 겪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남 지역 수출 품목 가운데 철판은 석유제품에 이은 2위로, 주요 수출품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해 철판 수출액은 81억6000만달러로 2023년(85억6000만달러)보다 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18.6%에서 2024년 17.9%로 줄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철강 산업의 하락세는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국회철강포럼 주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전남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양 구룡산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광양제철소 전경. <광양시 제공>

로 열린 '철강산업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정책세미나에서는 미국이 수입상대국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14%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성장률도 0.2%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와 가전제품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국산에서 생산한 강판을 미국으로 수입해 완성차를 만들고 있다. 한국산 철강에 관세가 붙으면 완성차의 판매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현대차·기아의 미국 수출물량은 약 97만대(현대차 61만대·기아 35만7천대) 가량으로, 지난해 현지 판매량의 57% 정도에 해당한다. 한국 GM의 수출물량도 반조립제품(CKD)을 포함해 40만대에 달한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철강판이 빠지지 않는 가전업계의 고민도 비슷하다.

통상환경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다 미국의 관세부과로 철강시장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면서 산업부

와 전남도도 철강산업 관련 위기대응에 나선 상태다.

산업부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뿌리기술 지원에 나서기로 했고 전남도는 친환경·고부가 금속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소재 다각화로 고부가가치 금속·공산품 육성에 방점을 찍었고 뿌리·소재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 글로벌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ISA 누적 평균 수익률 전 은행권 1위

철저한 전략·리스크 관리 성과

광주은행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일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모네포토플리오(MP) 누적 평균 수익률 전 은행권 1위를 기록했다.

일일형 ISA는 여러 종류의 자산을 한 계좌로 통합해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 상품으로, 전문가의 상품 운용과 분산투자 서비스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세제 혜택과 금융시장의 변화에 유연하

게 대응할 수 있는 만큼,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큰 추세에는 더욱 고객 맞춤형 투자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한 2024년 12월 말 기준 일일형 ISA 수익률에 따르면 광주은행의 고위험 MP는 62.62%, 중위험 MP는 41.02%, 저위험 MP는 21.75%를 기록했다. 이는 은행권 전체에서 가장 높은 누적 평균 수익률이다.

광주은행 일일형 ISA 운용팀은 선진국 위주의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성장산업 관련 자산을 조

기에 편입하는 투자 전략과 강화된 리스크 관리 전략이 더해져 성과 개선에 큰 시너지를 발휘한 것으로 이같은 성과를 분석했다.

김홍희 광주은행 WM고객부장은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전략과 리스크 관리 등으로 이같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익률 관리를 통해 많은 고객께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남중기원 올 경제 활성화 지원 정책 발표

기업 경쟁력·일자리 지원 강화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중기일자리진흥원)은 11일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전남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중기일자리진흥원은 올해 '고객과 함께 전남 경제의 미래를 여는 가치창조 파트너'라는 비전에 따라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미래 선도 역량 강화 등 핵심 전략을 통해 전남도 정책과 연계, 전남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물가·금리 상승 및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4400억원(경영안정자금 3200억, 시설자금 700억,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 규모의 육성자금을 운영한다.

올해는 조선·화학·철강 등 3대 주력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식품 등 지역 특화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일스톱 중소기업 현장지원단'을 운영, 다양한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수출기업 해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마케팅, 해외규격 인증지원, 통상 애로 해소 컨설팅 등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취업지원 목표를 1830명으로 설정, 전남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고 농촌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 목표도 8000건으로 설정해 추진한다.

특히 작년에 새롭게 구축한 전남일자리정보망과 전남일자리플랫폼 등·서부센터를 기반으로 청년센터, 귀농산어촌종합지원센터, 일자리종합센터 간 협력을 강화해 인구유입과 청년인구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중기일자리진흥원 관계자는 "도민이 체감하는 중소기업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중기중앙회 광전본부

전남신보와 손 잡고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전국 최초로 '위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광전남본부는 11일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전남 위기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 등 지역본부 내 조합 이사장들과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이 협약을 체결한 소상공인 패키지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 중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대해서 폐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창업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남도 내 소상공인은 사전면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 분야(경영개선·사업정리 지원·재기전략 수립)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제공받아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분야별 전문가의 경영 진단을 거쳐 1대 1 컨설팅 서비스, 최대 30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소

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어 이번 협약이 매우 의미 있다"고 밝혔다.

임경준 광주전남회장은 "전국 최초로 '위기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 업무협약이 이루어진 것이 매우 뜻깊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제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K-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

산업부 예산 2600억 투입

정부가 올해 조선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작년보다 40% 많은 약 2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선해양산업 기술개발사업 신규 연구개발(R&D) 1차 지원 과제를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친환경·디지털·스마트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한 바 있다.

로드맵에 따라 산업부는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 분야에 약 1700억원, 선박 건조 공정 디지털 전환에 약 700억원, 자율운항 선박 등에 약 2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기술 개발 지원에 나선다.

1차 과제는 총 17개, 약 200억원 규모로 설정됐다. 암모니아 추진 선박, 전기 추진 선박, 풍력 보조 추진 장치 등 친환경 기자재와 공정 혁신을 위한 협동 로봇 개발, 조선소·협력사 간 협업 플랫폼 개발 등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라이프스타일 이미지. /연합뉴스

삼성전자 '영국서 신뢰받는 브랜드' 냉장고 1위

삼성전자의 냉장고가 영국의 주요 소비자 매체에서 연이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영국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에서 냉장고 부문 1위로 선정됐다. 뉴스위크는 시장조사기관 브랜즈스파크와 함께 영국 소비자 1만 7000여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해 주요 소매 부문별 신뢰받는 브랜드를 꼽았다.

또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

고는 영국 가전 전문 매체인 굿하우스킴이 최근 발표한 '최고의 냉장고'에서 최고점을 획득하며 최고의 냉장고로 인정받았다.

굿하우스킴은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에 대해 "이보다 더 발전된 냉장고는 없다"고 극찬하며 100점 만점에 90점을 부여했다. 삼성전자 냉장고는 지난 12월 영국 왕실로부터 '로열 워런트' 인증을 받기도 했다. 로열 워런트는 5년 이상 왕실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한 업체를 평가해 부여하는 영국 왕실의 공식 인증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잔 중 1잔 디카페인

지난해 3270만잔 팔려

국내 스타벅스에서 팔리는 아메리카노 중 디카페인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해 디카페인 음료 판매량이 3270만잔으로 전년보다 55%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판매량과 판매 증가율은 디카페인 음료 판매를 시작한 2017년 이후 최고다.

디카페인 음료는 지난해 5월 누적 판매량 1억 잔을 돌파했으며 지난해 말까지 누적 1억2천 800만잔이 팔렸다.

디카페인 대표 음료인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는 지난해 전체 음료 판매 순위 4위에 올랐다.

전체 아메리카노 판매량 중 디카페인 아메리카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에는 8.9%였으나 지난해는 처음으로 10%를 넘겼다. 아메리카노 10잔 중 1잔이 디카페인으로 판매되는 셈이다.

올해 1월에 들어 스타벅스 디카페인 음료의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 45% 이상 늘었다.

디카페인 음료 인기는 수출입 통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디카페인 생두와 원두 수입량은 7천23t(톤)으로 전년보다 7.7% 증가했다. /연합뉴스

GICON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우수권역 선정

국비 2억1000만원 추가 확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2024년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의 연차평가에서 호남권이 우수권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2억1000만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교육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난 2020년 시작했다. 현재는 호남·동남·동북·충청 4개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GICON은 호남권의 주관기관으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연차평가에서 호남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은 ▲디지털 빅테크 기업 및 지역 선도기업 연계과정 운영 ▲AI특화인재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ICT복합클러스터 시설 이용 및 디지털 신기술 개발자 중심의 교류 지원 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해당 사업이 실시된 지난 5년간 누적 이용

자 25만 497명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고, '디지털 신기술 교육(6267명)', 'AI-SW 장기교육(335명)',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지원(150명)', '교육과정 교재개발(41건)', 'AI 창업지원(13건)', '지적재산권 출원(11건)', '대중화 확산(267건)'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지난해 사업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등 지역 SW·AI 산업 성장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39.05 (+17.78)
↓ 코스닥	749.59 (-0.08)
↓ 금리(국고채 3년)	2.633 (-0.005)
↑ 환율(USD)	1452.20 (+1.00)
<small>(오후 5시 55분 기준)</small>	